제116회 정기대공연 음향 인수인계서

음향이 꿀이라고 생각한 그대, 정말이니 음향 그대로를 즐기시길… Adios…

1. 음향 구하기

효과음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쉽다. 웬만한 효과음은 youtube에서 구할 수 있으며, 녹음이 필요한 것들은 녹음하여 편집하면 된다.

그에 비해 연출이 원하는 느낌에 음악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음악을 전략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음악이 필요한 부분의 상황과 분위기를 인지하고, 이에 연상되는 수식어 등을 떠올려 검색한다. (예를 들어, 차분한 음악, 신나는 음악 등…)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음악이 필요한 부분과 비슷한 상황을 그린 영화나 연극, 뮤지컬의 ost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평상시에 흘러나오는 여러 음악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적절한 음악이 구해지기도 한다.

결국 대본 숙지와 분석이 다른 스텝들에 비해 많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만큼 극 자체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 때문에 연출진과의 회의 및 캐스트 연습 참관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공연준비 초반에 음악 구하는 것만 끝난다면 이후에 할 일이 많이 사라진다.

음향편집 또한 편집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다면 금새 편집에 달인이 될 수 있다.

2. 공연

음악과 효과음이 구해지고 편집도 끝났다면, 이제 실전에서 음향 오퍼보는 것이 남았을 것이다. 음향기기는 공연장 자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일이 없다고 해서 무대설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음향기기 사용법, 음량, 음질 등이다. 음향라인은 동방에 구비되어 있다.

명륜 원형극장의 경우 본인의 전자기기를 음향라인으로 음향기기에 연결한 뒤, 기기의 마스터 볼륨을 조절하면 음량 조절도 가능하다. 음향기기의 사용법은 115회 대공연 음향 인수인계서에 나와있다. 어렵지 않으니 스스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게다가 원형극장의 음질은 매우 좋으니 행복하게 오퍼를 보면 된다.

율전 소극장의 경우 문제가 매우 많다. 일단 스피커는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서 달아놓았는지 음질이 매우 안 좋다. 학교에 문의를 해보아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다.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 자체를 부드럽게 편집하면 그나마 찢어지는 소리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깔끔한 소리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또한 율전 소극장에는 음향기기가 없어서 오퍼실에서 본인의 전자기기를 오퍼실에서 스피커에 직접 연결하여 음량을 조절해야 한다. 스피커에 연결하는 방법도 114회 대공연 음향 인수인계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거나, 스스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